

## 사순절 제5주 (나해) 거룩한 독서

### Lectio Divina

#### ■ 내적 침묵기도 | Centering Prayer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오시도록 청합니다. 침묵기도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작아지고 주님의 활동하심이 커지면서 우리는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되고, 그분의 이끄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일상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고, 영적 자유와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 ① 몸이 불편하지 않도록 허리를 펴고 자세를 편하게 잡습니다.
- ②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향합니다.
- ③ 잡념이 생길 때에는 사로잡히지 말고 물 흐르듯 흘려보냅니다. 이때 거룩한 단어(예: 하나님, 주님, 사랑, 평화, 예수 등)를 부드럽게 떠올림으로써 기도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 ④ 적어도 20분간 침묵으로 하나님 현존 앞에 머물습니다.
- ⑤ 기도가 끝나면 2-3분 동안 기도 속에서 천천히 나옵니다.

■ **폐제 찬양** ⏱️10분  
■ **읽기** | Lectio ⏱️20분

#### 구약 | 렘 31:31-34

- 3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34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응송 | 시 51**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서신 | 히 5:5-10**

- 5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6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 복음 | 요 12:20-33

- 20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 그들이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니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 하리라  
 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7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 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9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1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의 쫓겨나리라  
 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 **묵상** | meditatio    20분
- **기도** | Oratio        10분
- **나눔** |                10분
- **관상** | Contemplatio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지향하는 기도가 계속되게 합니다.

## 성서일과 주제 : 새 언약이신 예수님

### 구 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뜨렸을 때(렘 31:32), 하나님은 먼 미래에 탄생할 아기 예수께 희망을 두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렘 31:31)고 하신다. '옛 언약'이 율법에 기초한 약속이라면, '새 언약'은 복음에 기초한 약속이다. 이것은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였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돌이나 양피지가 아닌 그들 '마음'에, 그리고 차가운 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복음을 주셔서(렘 31:33),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법의 준수가 아닌,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루시는 사랑의 결과로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 서신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 5:8, 9)라고 말씀한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히 5:7)는 것은 그 역시 죽음 앞에서 공포를 가지셨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이 되었다.

### 복음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고 난 후 600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헬라인들 앞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요 12:23)라시며, 한 알의 밀의 죽음에서 당신의 죽음을 보여주신다.(요 12:24) 예수님 자신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성취를 받아들이신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요 12:27)”라는 예수님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온전한 순명이 빛을 발한다.

### 응 송

시인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시 51:12)라고 노래한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새 언약은 하나님께나 성도에게나 오롯이 구원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다.